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순회검진에서 자궁암을 발견,

때때로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일하기 위해 사는지를 반문하곤 한다. 대답은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흔히 그일을 망각하고 산다.

건협의 순회검진에서 자궁암 검사를 받아 이상을 발견한

자궁암



◀ 생각지도 않았던 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정기건강검사의 필요성과 삶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권남이씨.

건강하게 살기 위한 움직임”

건강을 회복한 권남이 씨

권남이씨(만43세,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1동).

발견 즉시 수술을 받아 건강을 회복한 그녀는 삶의 중요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건강 검사가 왜 필요한지를 새삼 느꼈다며 밝게 웃었다.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청송

오랫만에 터덜거리는 시골길을 달린다.

언제였던가, 반나절을 걸어 들어가야 했던, 그러면서도 갓 따서 삶은 옥수수를 떠올리며 힘든 줄 모르고 찾아갔던 외갓댁을 생각나게 하는 길이기도 했다.

대구에서 청송으로 빠지는 지름길인 이 길이 빨리 공사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 벌써 멀리 주왕산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은 산봉우리를 타고 깃푸른 녹음이 펼쳐진다. 약수로 유명한 청송.

상큼한 시골 공기, 자연 경관들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일까.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에 건강한 웃음이 배어 있다.

권남이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을 앓았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건협 경북지부 순회 검진에서 자궁암 검사를...

『몇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X-Ray를 찍어봤지만 별 이상이 없고 해서 산후 조리를 잘못해 나타나는 후유증 정도로 생각했었죠.』 시골 주부의 순박한 웃음을 웃으며 권남이씨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또, 『그전에는 병원이라곤 근처에도 안가봤어요. 그만큼 건강엔 자신이 있었죠.』라고 말했다.

-그외에 특별한 증상은?

『검사를 받기 전엔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질 분비물이 좀 많았어요. 성관계 후 출혈같은 것은 없었구요. 분비물이야 누구나 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아니었구요...』

- 자궁암 검사를 받게 된 동기는?

『작년 봄 건강관리협회경북지부에서 순회검진을 나왔을 때 었어요. 동네 여자들과 함께 자궁암 자가채취기를 이용해 검사를 했죠.

검사결과 자궁암에 걸린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병이라곤 몰랐던 저였기 때문에 믿기지도 않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안동의 모 병원을 찾아갔다.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로 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마음이 여간 비참하지 않았어요.』

권남이씨의 남편 윤주복씨(47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한다.

『이사람은 우리집의 대들보죠. 노모를 모시고 농사를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등 집안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자궁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에 좀더 건강에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이 여간 후회되지 않더군요.』



◀자궁암은 자각 증상이 전혀 없어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부터 정기검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북 지부 관리의사 최원만씨.

모든 주부들에게 건강 검사의 기회를

한편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관리의사 최원만씨는 『권남이씨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궁암은 자각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게 특성이죠. 평소에 자주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발견되기 어렵

읍니다.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하루종일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니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모든 주부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겠어요. 인식을 고양시키는 일도 중요하겠구요.』라면서 정기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수술 성공, 그녀 앞엔 새로운 삶이 놓여 있다.

권남이씨는 계속 얘기한다.

『다시 경북의대를 찾아갔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았읍니다. 기대한 것과는 달리 결과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으라더군요.』

그녀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혹시 죽는 것이 아닐까, 정말 수술을 하고 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가족들의 얼굴이 수없이 떠올랐다가 스러졌다. 그냥 있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녀는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털어 놓는다.

수술이 끝나고 몇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린 그녀 앞에는 부군 윤주복씨의 걱정에서 찬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난 것이다. 그녀 앞에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 놓여 있었다.

『2주일 후 퇴원을 했읍니다. 그 이후 3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있어요.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읍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라며 권남이씨는 밝게 웃었다.

『주위환경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히 와 닿았던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사의 중요성입니다.』 부군 윤주복씨의 말이다.

그는 또 『건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여건상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해요. 건협의 무료 검진 사업의 계속 확대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1남 3녀의 자녀와 노모를 모시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권남이씨의 가족. 이제 그들에게 슬퍼해야 할 일은 없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만이 있다.